

강진만 생태공원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

환경부 생태축 복원 공모 선정 국비 등 사업비 60억원 확보 6만2857㎡ 지형·식생 복원도



강진군이 환경부 주관 '2022년도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만 생태공원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만에 사는 10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 강진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 확장으로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복원을 추진,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생·고유 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시·군 중 강진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 확장으로 생태축이 훼손되며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복원을 추진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생·고유 종의 재정착을 유도한다. 군은 2023년까지 강진읍 남포리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6만2857㎡에 지형복원 및 식생복원, 서식처(은신처 등)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을 보은산과 강진천을 따라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의 지형과 식생 복원도 할 예정이다. 강진만에는 1131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만 갈대밭은 천연기념

물 큰고니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식물 10여 종이 서식하는 생물자원 구역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 읍면동 직원들과 열린대화



나주시가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행정의 최일선 현장을 지키는 읍면동 직원들과 열린대화를 가졌다. <사진> 나주시는 최근 나주정미소에서 강인규 시장이 읍·면·동 팀장 및 8~9급 공직자 40여명과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세대공감 토크(talk)'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나주정미소에서 열린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기타 공연과 커피 타임, 직원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60여분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개방형 화상실 시설 개선', '자연재난 관련 비상근무 완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검토', '구제역 백신 상시접종 운영방법 개선', '무인발급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대화 장소인 나주정미소는 읍성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난장곡간'이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한 곳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다'는 모토 아래 지난 2019년부터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과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직원간의 열린 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챙겨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가겠다"며 "젊은세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팀장들의 경험과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룬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일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g@kwangju.co.kr

장흥군 댐주변 주민지원 특별공모사업 선정

3억여원 확보...승강장 리모델링

장흥군이 2022년 댐주변 주민지원 특별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댐주변 지원 특별공모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댐 주변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받은 지역의 주민숙원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장흥군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맞추어 유지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10개소를 고효율 태양광에너지 승강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은 이상기후인 폭염, 혹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탄소에너지자, 선풍기, 실외 LED 이점표, CCTV를 설치,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친환경 승강장으로 탈바꿈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필수 장소인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이서면에 탄소중립 공동 육묘장 설치

영산강환경청 공모 선정 10억 확보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2022년 주민 특별지원 공모 사업'에 화순군이 신청한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는 10억 원으로 주민 특별지원 공모 선정 사업 중 국비 확보액이 가장 많다. 이서면 탄소중립 친환경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은 내년부터 총사업비 15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3연동 하우스, 발아실, 작업장, 녹화장을 설치하고 육묘 기자재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발아실 지붕에 설치할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친

환경 공동 육묘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시설 구축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저비용 고품질 육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동 육묘장 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DSC) 구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상수원관리 지역 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우수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은빛 억새 흐드러진 장흥 천관산 장흥군 천관산(723m)에 흐드러진 억새가 가을을 반기며 일렁이고 있다. 천관산 억새는 10월 중순부터 말경 사이에 절정을 이루며, 해질 무렵의 억새밭 풍경은 다도해의 풍광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억새밭 산행은 장천재에서 금강굴~구정봉~억새능선~연대봉~정원석~다시 장천재로 하산하는 원점 회귀형 코스가 일반적이다. <장흥군 제공>

가을꽃 만개한 장성 황룡강변 촘촘한 방역

장성 황룡강변에 가을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은 곳곳에 방역게이트와 자율방역존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일원에는 황화코스모스와 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등 가을꽃이 개화 시기를 맞아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3.2km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가을꽃의 향연에 관광객들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제의 '빈센트의 오화원'에는 가을 나들이의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성군은 당초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노란꽃 잔치를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개천절 연휴 등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이어지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안심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거점에 총 4개소의 통과형 방역게이트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안심콜 이용과 발열 확인,

타인과 거리두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게이트에는 방역계도요원이 투입돼 방역의 효율을 높였다. 꽃길 곳곳에는 40개소의 자율방역존도 설치했다. 방역 안내문과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변길마다 갖춰진 스피커에서는 주기적으로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을을 맞아 누구나 황룡강 일대를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실태 점검과 안심방역기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